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7호 【루게 제25921호】 주제 107 (2018)년 2월 16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박광호동지, 리수용동지, 김령해동지, 태종수동지, 오

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김영철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승업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군종명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군종명에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참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력사적대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